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산업단지는 분양률과 가동률만 높고 보면 채워진 공간으로 보이지만, 고착화된 노후·고밀·산업 쓸림 현상으로 인해 '산업구조 전환'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왼쪽)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전경.

업종 재편·기능 고도화로 산업구조 대전환 해야



광주·전남 산업단지 대책부

▶1면에서 계속 광주·전남 산업단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최근 들어 달라지고 있다.

되는 방식으로 산단이 굳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분양률과 가동률만 높고 보면 이미 충분히 채워진 공간에 가깝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산업 구조 전환이 쉽지 않은 현실이 동시에 드러난다. 공장 수와 생산 규모는 유지되고 있지만 새로운 산업을 담아내기에는 공간과 기능, 업종 체계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의 경우 주요 산업단지 상당수가 1980~1990년대에 조성된 노후 산단이다. 조성 당시에는 노후 산단을 기준으로 설계된 용도 체계와 빌지 구조는

되도록 설계된 용도 체계와 빌지 구조는